“인재불사 미루면 10년내 위기”

조계종 중신회 인재개발원, 발기인 수련회 개최

“유능한 한 사람이 전체 조직을 살린다.” “인재경영이 대세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경영분야의 모토로 자리 잡은 말들이다. 대중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대중 속에서 어떻게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느냐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불교계라고해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불교계의 현실은 아직도 ‘수공업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첨단산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인재불사에서도 한참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일고 있는 수행 · 신행 붐에 비춰볼 때 불교인재들을 모으는 것은 절실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상임대표 박윤흔)이 6월 3~4일 경기도 양평에서 발기인 수련회를 열고 ‘인재불사’의 방안을 모색했다.

포교 · 지역불교 활성화의 원동력

6월 3일 열린 워크숍에서 ‘불교계 인재개발의 중요성과 개발원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인재불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10년 이내에 불교계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체기의 불교, 침체기의 개신교, 성장기의 가톨릭’으로 3대 종교를 평가한 김 교수는 “17대 국회의원 종교비율(불교 11.4%)이나 5 · 31 동시지방선거 당선자 현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불자들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재불사를 소홀히 한 결과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불교 인재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로 종단의 종책 부재와 불교계 활동 영역 전문화 및 세분화 미흡, 교육 및 연수기관 부재, 스님과 신도들의 무관심 등을 꼽으며 관련 연구소만 40여개에 이르는 기독교의 성장은 필연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불교인재개발이 △포교 역량 강화 △지역불교 활성화 △불교 사상의 사회화 등을 촉진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불교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불교 기본교리와 사상체계 교육 △인재개발에 따른 법회 모델 제시 △수행프로그램 개발 △불교 스피치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개발 △상담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국적인 불교인재 네트워크 구축과 청정국토, 청정사회 구축을 위한 실천적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웃종교 벤치마킹하자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참가자들은 인재불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불교인재 육성 부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6월 3일 열린 불교인재개발원 수련회에서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회지도층 불자비중 갈수록 낮아져
> 종책 부재 · 활동영역 비전문화가 원인
> 개발 모델 · 네트워크 구축 등 과제

금융단불자회에서 활동하다 퇴직한 황정석씨는 “사람들을 찾으려 해도 불자들은 자꾸 숨으려고만 한다”며 “자신을 감추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대불련 총동문회 홍경희 조직위원장도 “주위를 보면 인재가 참 많은데, 이 많은 구슬을 꿰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동국대 김용택 부총장은 “불교사회복지 전공자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 개월째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화되지 않은 인재들을 어떻게 수면위로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성대 행정학과 황진수 교수는 “사람을 키우는 문제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이웃종교의 포교방식과 인재 육성 방식을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과학대 박경희 교수도 “김응철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인재들이 하나둘 모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인재개발원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인재개발원 7월 6일 공식 창립

한편 불교인재개발원은 오는 7월 6일 공식 창립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6월 22일에는 ‘대승기신론과 CEO의 철학’을 주제로 허달 前 SK아카데미 교수가 진행하는 정책포럼을 열 계획이다.

글 · 사진/양평=유철주 기자

경찰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경불회, 창립 5주년 기념법회서 ‘청정운동’ 동참 선언

경찰불교회는 해남 대흥사 보현전에서 창립 제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청정운동 동참을 선언했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 이하 경불회)가 대한불교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2006청정운동-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동참을 선언했다.

경불회는 6월 4일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 대흥사 보현전에서 봉행한 ‘창립 제5주년 기념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를 위한 기원법회’에서 경찰 청정운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경불회는 선언문을 통해 “경찰 청정운동은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선도하여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물줄기를 이루고자 함이다”고 밝혔다.

경불회는 또 “청정운동은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이었고, 우리 겨레가 수 천 년을 지켜온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자각하며 청정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불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불회 김진홍 상임법사는 “경찰 불자들은 ‘청정운동 신행 수첩’에 하루하루의 실천 사항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 140여 지회에서 함께 청정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좋은 생각 하면 날마다 좋은날”

영등포교도소 류화영 교회사

류화영 교회사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서울 영등포교도소 류화영(52 · 해운) 교회사(敎誨師, 종교를 통해 재소자 교화를 담당하는 사람)는 항상 이 ‘일체유심조’를 가슴에 새기며 산다.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꼭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재소자들에게도 항상 일체유심조를 강조합니다. 좋은 생각을 계속하다보면 다시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일체유심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녹아 있다고 말하는 류 교회사는 그래서 ‘날마다 좋은날’이다. 안양 집에 조성한 불단에 매일 새벽예불을 올리고 1시간 먼저 사무실에 도착해 재소자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교도소 행정 업무를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재소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재소자 1100여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다보니 ‘아버지’ ‘친구’ ‘아들’의 1인 3역을 해내야 한다.

“대부분의 재소자가 기혼자들입니다. 그래서 수감되는 순간부터 가정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말없이 사라져버린 부인, 행방불명된 아이들 문제로 재소자들은 하루에도 수백번씩 갈등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지요. 또 이들에게 불법(佛法)을 전하는 것도 저의 중요한 업무지요.”

그래서 류 교회사의 책상에는 항상 염주와 경전이 쌓여 있다. 불교에 관심이 있는 재소자들에게 언제라도 나눠주기 위해서다.

거리에서 만나는 불자들에게도 염주와 경전을 조건없이 나눠준다.

류 교회사가 이렇게 신행과 재소자 포교활동을 해온지도 벌써 30년. 1977년 1월부터 교정 업무를 시작해 전주, 안양, 춘천, 강릉, 의정부, 서울 등 전국 10여개 교정시설을 거쳐 영등포교도소에 왔다.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스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고성 건봉사 회주 영도 스님, 서울 문수사 주지 혜정 스님, 서울 구룡사 주지 정우 스님 등이 각종 물품을 보내주시니 저는 그것을 다시 나눠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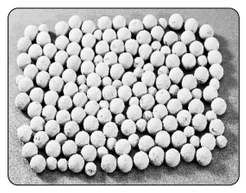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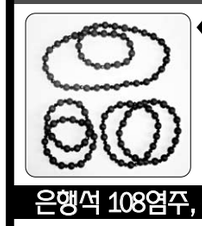
그리 넉넉하지 못한 급여에도 불구하고 재소자들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스님들의 풍성한 후원이었다고 전하는 류 교회사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

“앙굴리말라도 부처님을 만나 모든 죄를 참회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조계사와 승가사, 문수사 등 서울시내 사찰 3곳 이상을 참배해야 다음 일주일이 편안하다는 류 교회사에게 평일과 휴일이 따로 없다. 오직 부처님과 재소자와 함께 하는 시간만이 있을 뿐이다.

글 · 사진=유철주 기자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영도 큼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해원사 치세요
연락처 031)736-3734 031)732-3790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 (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